

# 기능경기대회 마라톤·걷기대회 내일 열린다

## 광주월드컵 경기장서 오전 9시 출발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건강걷기대회가 20일 오전 9시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스트트 총성으로 울린다.

기능한국의 미래를 이어갈 전국 기능경기 대회(22~28일)를 앞두고 광주일보사가 기능인력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노동부·광주시·광주시교육청 주최로 열

리는 이번 대회는 하프코스(21.0975km)와 건강걷기(4.5km) 두 종목으로 진행되며 동호인 5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하프코스는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해 풍금사거리-풍암마제우체국사거리-화물터미널사거리-서광주역앞교차로-서창교차로를 거쳐 뚝방길에 진입해 서창 방범초소 앞의 반원점을 돌아 오게 된다. 건강걷기

는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해 풍암저수지 사거리-원광대한방병원사거리-짚봉터널삼거리-염주체육관사거리-월드컵경기장삼거리로 진행된다. 참가자 제한시간은 하프코스 3시간 내내, 건강걷기는 2시간 이내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최근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책으로 대회장의 모든 출입구와 트랙 곳곳에 위생시설을 설치했다. 또 본부

석 메인부스를 비롯한 4곳의 메디칼부스에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이 충분한 진단과 처치장비를 갖추고 만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기념품도 풍성하다. 하프코스의 경우 1위 상금 40만원·상장·트로피, 2위 상금 30만원·상장·트로피, 3위 상금 20만원·상장·트로피가 각각 주어진다. 또한 4위부터 44위까지는 상장과 부상품이 지급된다. 하프코스 30명·걷기 70명에 걸 행운상이 주어지고 20명이상 단체팀에겐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이밖에도 우수단체상·포토제니상·이벤트 참가상 등도 준비되어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신지애 '왕중왕전' 출발 좋다

### LPGA 삼성챔피언십 1R 김송희와 공동 선두

#### 오초아는 1타차 3위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인자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선수상'을 향해 힘 차게 나아갔다.

신지애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낭코스(파72.6천721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로 막고 버디 7개를 쓰러답아 6언더파 66타로 김송희(21)와 함께 공동 선두로 나섰다.

올 시즌 3승을 거두 신인왕을 사실상 굳힌 신지애는 정예선수 20명만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올해의 선수상은 물론 상금왕과 다투는 최저타수상(베어트로피)까지 쟁이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접하게 된다.

신지애는 1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벙커에 빠뜨리는 바람에 1타를 잃기는 했지만 페어웨이는 단 한 차례만 놓쳤고 그런 적중률 77.8%에 퍼트수는 27개로 줄었다.

드라이버 비거리는 240야드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어프로치샷으로 버디 기회를 만들며 4개의 파5홀에서 모두 1타씩을 줄였다.

신지애는 LPGA 투어 공식 기자회견에서

"코스의 전장이 길고 레프트도 어려워 2, 3언더파를 목표로 경기했다. 너무 피곤해 좋은 성적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3번홀(파3)에서 티샷을 1m 이내에 넣어 버디를 잡은 뒤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번번이 정상 문턱에서 고개를 막셨던 김송희도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작년 이 대회에서 1타차로 풀라 크리머(미국)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던 김송희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티샷을 컴퓨터 아이언샷으로 만회하며 버디 7개에 보기 1개를 적어냈다.

US여자오픈 우승자 지은희(23·휠라코리아)가 6언더파 78타를 쳐 최하위로 떨어졌지만 최나연(22·SK텔레콤)이 공동 9위(1언더파 71타), 김인경(21·한나금융)이 공동 12위(이븐파 72타)에 올랐다.

1999년 박세리(32) 이후 10년만에 우승컵을 찾아오려는 한국 선수들에게 경계 대상 1호는 역시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다.

연말에 결혼을 앞둔 탓인지 올 시즌 여제의 위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오초아는 1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소피 구스 타프손(스웨덴)과 함께 1타차 공동 3위에 자리해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작년 대회 우승자 크리머는 7위(3언더파 69타)로 첫날을 마쳤다.

/연합뉴스

#### '지존'의 칩샷

신지애가 18일(한국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의 토리 파인즈 사우스 코스에서 벌어진 LPGA 삼성 월드 챔피언십 골프 토너먼트 1라운드 중 파 세이브에 성공하기 앞서 언저리에서 17번째 그린쪽으로 칩샷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0월15일부터

### 18년만에 추석 연휴 PO

프로야구 '가을잔치'가 오는 29일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는 18일 2009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정규리그 3·4위 팀간 맞붙는 준플레이오프는 29일부터 10월5일까지 열리며 5전3선승제로 진행된다.

10월 7일부터는 페넌트레이스 2위팀과 준플레이오프 승리 팀끼리 5전3선승제로 플레이오프 대결을 벌이게 된다.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승자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석인 10월 3일에 4차전이 치러져, 지난 1991년 9월22일 대구에

서 열린 삼성과 롯데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 이후 18년 만에 추석에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게 된다.

최후의 승부인 한국시리즈는 10월15일부터 23일까지 7전4선승제로 진행된다.

포스트 시즌은 정규시즌과 마찬가지로 연장 12회까지 승부를 내지 못하면 무승부로 처리되고, 우천으로 경기가 차려지지 못하면 다음날 순연 진행된다.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승자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석인 10월 3일에 4차전이 치러져, 지난 1991년 9월22일 대구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에서 재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호는 전날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에서 7회 투심 패스트볼을 던지자 오른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벤치로 들어왔고 걷기도 어려웠다.

스콧 프로프록 필라델피아 단장 보좌역은 "박찬호는 불펜에서 중요한 선수"라며 이달을 아쉬워했다.

/연합뉴스

## 생활 게시판

### 화촉

▲김동걸·박화순씨 장남 성민군 김창환(영암 강릉농장)·이호란씨 딸 나리양 = 19일(토) 오후 2시 서울 월드컵경기장 컨벤션웨딩홀 2층(다이아몬드홀)

▲박종재(전남여고 교장)·김자정씨 장남 수영군 김상기·조영애씨 장녀 희정양 = 19일(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신인터밸리 4층(메모리스홀)

▲고무식·여명자씨 장남 영준(바오로)·윤재선(궁전제과 대표)·서덕성씨 장녀 해라(안나)양 = 20일(일) 낮 12시 30분 호남동 성당.

### 부음

▲박권택씨 별세 중선·재선·순자씨 부친상=발인 20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유진석씨 별세 정래·경래씨 부친상=발인 20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100호. 062-515-4488.

▲정순임씨 김미선·옥남씨 모친상=발인 19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 노컷뉴스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라인 : 080-3376-8888



라디오 콘텐츠

라디오 콘텐츠

라디오 콘텐츠



TV 콘텐츠

TV 콘텐츠

TV 콘텐츠



기독교방송

CBS

우주 전파



영광의 계시

영광의 계시



영광의 계시

영광의 계시